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포시에스(189690)

소프트웨어/IT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 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 성 자	정재진 전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주)(TEL.02-3215-23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포시에스(189690)

리포팅 & 전자문서 솔루션 1위 기업

기업정보(2020/06/01 기준)

대표자	박미경
설립일자	2008년 07월 23일
상장일자	2015년 02월 11일
기업규모	중기업
업종분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Z Report, OZ e-Form, eformsign (소프트웨어)
주요제품	

시세정보(2020/06/01 기준)

현재가(원)	6,71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528억원
발행주식수	7,880,323
52주 최고가(원)	7,600
52주 최저가(원)	4,000
외국인지분율	1.08%
주요주주	조종민 외 3인

■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기업

포시에스(이하 ‘동사’)는 2008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증권이 상장되었다.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이며, 국내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의 선두그룹이다.

■ 주요 기술역량

동사는 2010년 10월부터 (주)포시에스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인력은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총 49명으로 회사 전체 인력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현재까지 대법원, 국세청, 증권사, 은행사, 병원 등에 동사의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동사는 OZ e-Form을 앞세워 2020년 상반기에 미래에셋생명과 한국투자증권의 디지털 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전자약정 · 웹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한화저축은행의 외국인 대상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산업계가 재택근무, 비대면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2017.6)	128	-8.5	20	15.68	21	16.12	4.88	4.72	2.27	264	5,658	27.84	1.30
2018 (2018.6)	181	41.4	41	22.55	63	34.93	13.69	13.24	4.22	802	6,411	8.32	1.04
2019 (2019.6)	197	8.84	50	25.35	19	9.56	3.79	3.63	5.16	239	6,563	28.22	1.03



기업경쟁력

특허경영

-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록특허 8건 보유
(2020년 5월 특허등록 기준)
- 매년 꾸준히 특허출원을 위하여 연구개발 수행 중

기술 혁신 선도

- 전 산업 분야에서 보고서 작성부터 운영, 관리까지 지원
- 디지털 업무 환경을 위한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 클라우드 및 AI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OZ Report**
 - 어떤 환경에서도 구동되는 HTML5뷰어 제공, PDF문서와 SML서식을 하나의 문서에 혼용하여 활용 가능
- OZ e-Form**
 - 서식 제작 단계부터 기업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웹/모바일에서 업무처리 가능
- eformsign**
 - 인프라 구축, 설치가 필요없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적용제품

제품군



매출비중

■ 제품군별 매출 비중

(단위: 천원)

제품군	매출액	비중
Report 부문	10,633,958	53.86%
전자문서 부문	8,812,732	44.63%
eformsign 부문	3,956	0.02%
기타 부문	294,754	1.49%
총 합계	19,745,400	100%

시장경쟁력

국내 주요 기업

- 포시에스, 국내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약 50% 점유

포시에스	엠투소프트	클립소프트	크리스탈 리포트
OZ 8.0	Crownix	CLIP Report / e-Form	Crystal Report XI

국내 시장규모

연도	시장규모	성장율
2014년	6조 1,677억원	연평균 ▲14%
2018년	10조 3,529억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세계 시장규모

연도	시장규모	성장율
2016년	20 억 달리	연평균 ▲15%
2024년	60 억 달리	

(Global Market Insights 전망)

총 합계 100%

최근 변동사항

클라우드 및 AI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 음성인식 기술과 AI 기계독해 기술이 연동된 전자문서 작성 프로세스

향후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의 업무 환경 변화로 비대면 업무 처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파트너 발굴 및 해외 지사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문서 기업을 목표로 함.

I. 기업현황

업력 12년의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포시에스

동사는 2008년에 설립되어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을 풍부한 전문연구원으로 자체 개발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에 공급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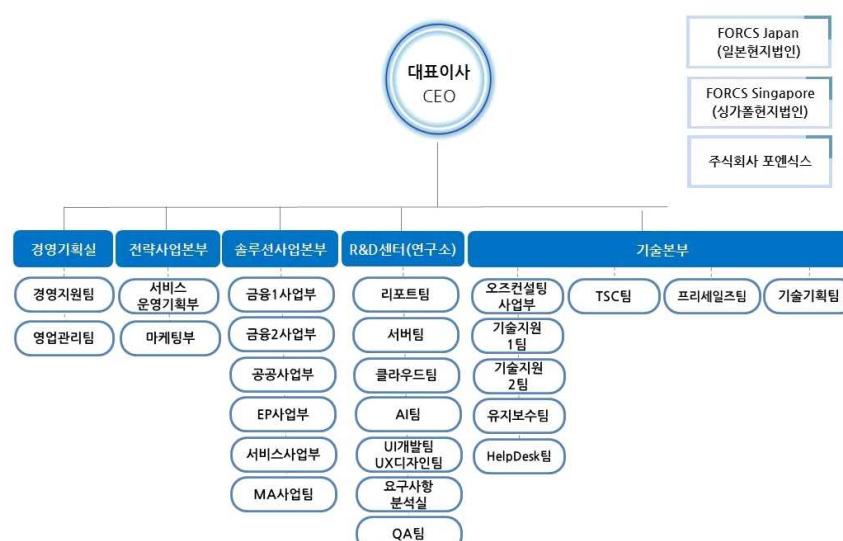
포시에스(이하 ‘동사’)는 2008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기업으로서,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동사의 제품은 기업정보화(BI, Business Intelligence)분야의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Born Digital) 기반의 자료입력 및 저장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며, 동제품의 성공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권에 모바일 비대면 설문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였다.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동사의 조종민 회장으로 동사의 지분 41.95%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박미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동사의 임원진들이 7.76%, 특수관계인이 1.56%, 기타 주주가 48.73%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01. 동사 지배구조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보고서(2020)



표 01. 동사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주식수	지분율(%)
조종민 (사내이사)	3,305,568	41.95
박미경 (대표이사)	590,244	7.49
조종명 (특수관계인)	122,697	1.56
송지훈 (사내이사)	21,155	0.27
기타	3,840,659	48.73
합계	7,880,323	100.00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보고서(2020), 기말

■ 대표이사 정보

동사는 설립 이후 몇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과정이 있었으며, 현재의 박미경 대표이사는 2014년 5월 취임하여 설립자인 조종민 회장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박미경 대표이사는 조종민 회장의 배우자로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주)유니소프트싸이언스, 한국엠제이엘(주), (주)유니베이스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동사 설립 당시부터 기술지원 및 개발을 총괄하다가 2014년 5월에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CEO이자 CTO로서 국내외 경영의 총괄은 물론이고 R&D도 총괄하고 있다.

박미경 대표는 25년 동안 포시에스를 이끌어온 IT업계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전자문서 산업의 성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활발한 의견제시와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업계의 발전에 조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동사의 CTO(최고 기술책임자)인 박미경 대표는 OZ제품 시리즈를 개발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동사가 대표적인 SW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 확장에 힘쓰며 국내의 선진화된 페이퍼리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박미경 대표이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회장직을 거쳐 현재는 제11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 주요 기술역량

동사는 149여 명의 상시종업원 중, 연구개발 인력이 49명으로서 회사 전체 인력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부문 조직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로 투자하는 등, R&D에 대한 꾸준한 역량 집중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품질대상(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문서대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 ICT 이노베이션대상(국무총리), 소프트웨어기업 경쟁력 대상(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R&D 품질관리 우수과제 장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수상하였다.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8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 사업’에 선정되어 ‘음성 사용자 경험 기반의 지능형 전자문서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고, 2020년 2월 ‘음성을 통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음성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 방법 및 장치’를 특허등록 받는 등, 연구개발의 집중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림 02. 동사 주요 연구개발 성과



*출처: 동사 IR자료(2020)

■ 주요 제품

동사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페이퍼리스와 스마트 업무 환경을 위해 XML과 PDF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인 OZ e-Form, 기업 보고서의 작성에서 배포 및 운영, 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작업을 지원하는 리포팅 솔루션인 OZ Report, 기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이문서를 누구나 쉽게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바로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하고 안전한 보관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인 eformsign이 대표적이다.

동사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로는 Crownix를 제공하는 엠투소프트, CLIP Report/e-Form를 제공하는 클립소프트, Crystal Report XI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Crystal Report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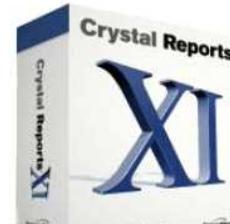


표 02. 동사 주요 제품군

OZ e-Form	OZ Report	eformsign
		

*출처: 동사 IR자료(2020)

표 03. 경쟁사 주요 제품군

엠투소프트	클립소프트	Crystal Report
		

Crownix

CLIP Report/ e-Form

Crystal Report XI

■ 매출 비중

동사의 주요 매출유형은 제품 및 기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7년 12,824백만원, 2018년 18,083백만원, 2019년 19,745백만원이다. 2020년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OZ Report 67.84%, OZ e-Form 29.95%, eformsign 0.07%이다. 동사의 2020년 3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년 주기 업무 개편에 따른 신규프로젝트 발주가 일반적이며 1년중 4분기(10월~12월)에 발주가 집중되기 때문에 2020년 최종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04. 제품별 매출 추이 및 비중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천 원)

품목		2020 (제12기 3분기)		2019 (제11기)		2018 (제10기)		2019 (제9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Report 부문	수출	400,940	2.64%	212,134	1.07%	250,740	1.38%	300,580	2.34%
	내수	9,891,004	65.20%	10,421,824	52.78%	10,963,217	60.63%	9,285,647	72.41%
	소계	10,291,944	67.84%	10,633,958	53.86%	11,213,957	62.01%	9,586,227	74.75%
전자문서 부문	수출	780,130	5.14%	184,949	0.94%	885,594	4.90%	393,191	3.07%
	내수	3,763,577	24.81%	8,627,783	43.70%	5,868,119	32.45%	2,844,684	22.18%
	소계	4,543,707	29.95%	8,812,732	44.63%	6,753,713	37.35%	3,237,875	25.25%
eformsign 부문	수출	3,337	0.02%	837	0.004%	-	-	-	-
	내수	7,106	0.05%	3,119	0.016%	-	-	-	-
	소계	10,443	0.07%	3,956	0.02%	-	-	-	-
기타 부문	수출	-	-	-	-	-	-	-	-
	내수	325,103	2.14%	294,754	1.49%	115,494	0.64%	-	-
	소계	325,103	2.14%	294,754	1.49%	115,494	0.64%	-	-
합계	수출	1,184,407	7.80%	397,921	2.01%	1,136,334	6.29%	693,771	5.41%
	내수	13,986,791	92.20%	19,347,480	97.99%	16,946,830	93.72%	12,130,330	94.59%
	소계	15,171,197	100%	19,745,400	100%	18,083,164	100%	12,824,101	100%

*출처: (주)포시에스 2020년 3분기 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해외 진출

동사는 2014년부터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전자문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9개국에 20여개 파트너를 통한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 SI 및 OEM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03. 포시에스 해외 전자문서 사업 추진현황



*출처: 동사 IR자료(2020)



II. 시장 동향

리포팅 & 전자문서 선두그룹, 포시에스

동사는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의 선두그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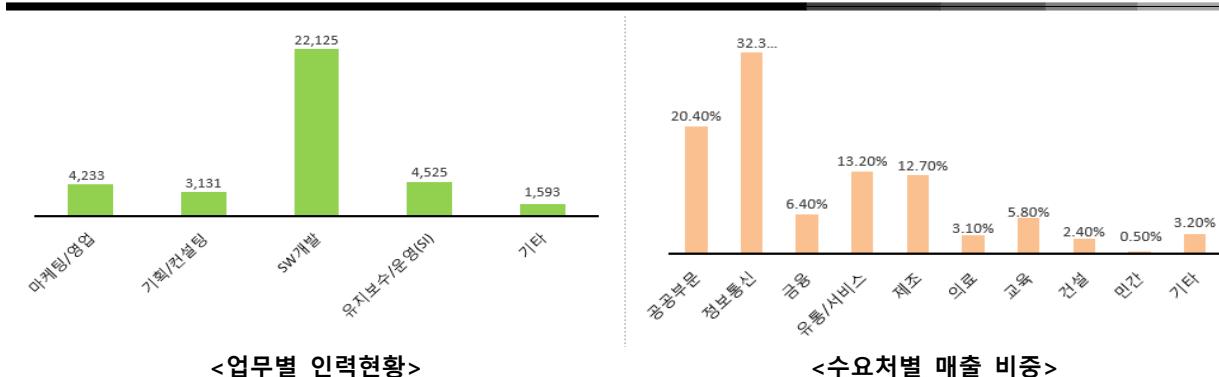
■ 국내 전자문서산업 시장

2000년대 초반까지 Crystal Report(글로벌 리포팅툴 시장 1위), SVF 시리즈(일본 시장내 중견 시장 점유율 1위), 후지쯔 Interstage List Creator, 엑츄에이트의 BIRT 등 글로벌 리포팅툴 기업의 제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영업 중단 혹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 위주로 리포팅툴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전자문서산업 사업체의 매출액은 약 10조 3,529억원으로 2017년 9조 4,354억원 대비 9.7% 증가하였고, 주요 매출분야는 정보통신(2017년 20.0%→2018년 32.3%), 공공·행정(2017년 17.7%→2018년 20.4%)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조 8,014억원, 2014년 6조 1,677억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Paperless’ 정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발효가 주효했던 것으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발주사업과 연구개발(R&D)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2018년부터 관공서, 기업, 금융기관 등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도록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하여 관련 기관들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전자문서산업 종사 인력 35,606명 중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분야가 22,125명(62.1%)로 가장 많았고, 유지보수/운영 분야는 4,525명(12.7%), 마케팅/영업 분야는 4,233명(1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요처별 매출비중은 정보통신(32.3%), 공공(20.4%), 유통/서비스(13.2%) 순이었다.

그림 04. 국내 전자문서산업 시장규모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9.12),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모바일 전자문서시스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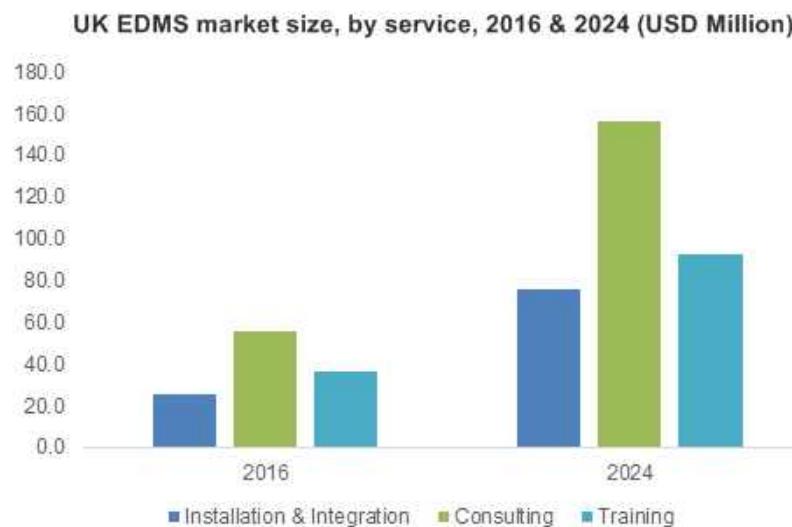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18~34세 보유율 99% – 50세 이상 보유율 91%)로 전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5월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공공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모바일로 인증과 증명서 발급, 행정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IT업체들이 모바일 인증, 생체 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자사만의 인증방법 등을 통해 손쉽게 민간·금융기관의 전자문서, 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의 전자문서 및 등기성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의 활용성을 넓혀나갈 것을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과 때맞춘 규제 변화로 인해 전자문서시스템이 PC단말기를 넘어서 모바일 기기까지 급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전자문서산업 시장

세계적인 IT 발전 메가 트렌드는 스마트디바이스, 소셜,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로도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페이퍼리스 전자문서 확산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Global Market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문서 관리시스템(EDMS) 시장은 2016년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여 2024년에 6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BYOD 트렌드, SaaS 기반 솔루션의 보급 및 빅 데이터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05. 세계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시장 전망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 (2017.12)

III. 기술분석

전 산업 분야 4천여 고객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포팅 솔루션 업체, 포시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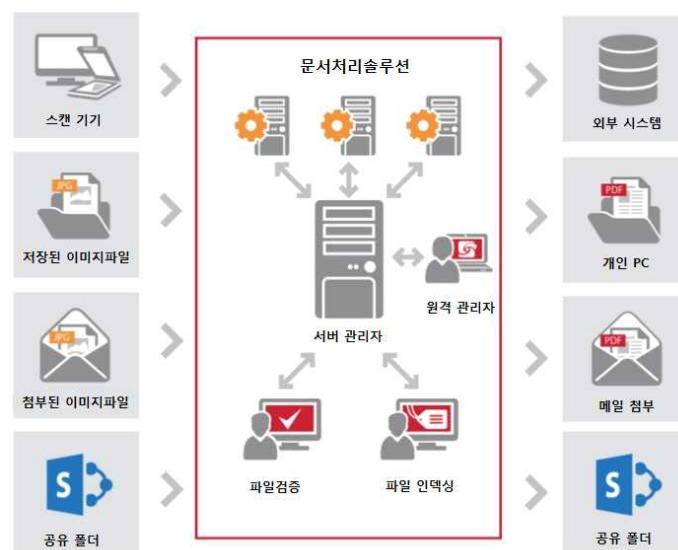
동사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이 정형/비정형 리포팅과 전자문서 생성하도록 지원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전자문서 개요

전자문서가 사용될 때 ‘원본성 유지’와 ‘재사용 요구’라는 상반된 현실적 요구가 공존하기 때문에 전자적 원본상태를 관리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원본사본이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통신과정에서 망실, 유출되는 경우에도 식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자문서관리는 종이문서보다 엄격한 기술과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특성을 보안하여 전자문서가 신뢰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ISO TC 171(전자문서 응용기술)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이미지 정보 전반의 응용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였다.

전자문서 솔루션은 복합기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보정하고 검증한 뒤 이를 압축하여 뷰어의 해상도에 적합하도록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로, ① 이미지 전처리, ② 검증, ③ 압축 및 변환, ④ 뷰잉 등의 절차로 구성되며 문서전자화, 문서변환 및 문서보안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그림 06. 문서처리 솔루션



*출처: 레티아 블로그,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전자문서 시스템의 동작원리

문서처리 솔루션은 스캐너가 이미지를 스캔하고 저장하면, ① 스캔된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② 문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검증하며, ③ 이미지를 뷰어의 해상도에 맞도록 압축 및 변환 후, ④ 전자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뷰잉(Viewing)하는 단계로 동작한다.

그림 07. 문서처리 솔루션의 동작원리



*출처: TDB 문서처리 솔루션(2018)

■ 리포팅 부문

동사의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리포팅 부문에서는 한 개의 리포트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복수로 연결이 가능하며 다중 데이터셋을 지원할 수 있고, ActiveX, Applet, Flash, WPF, HTML5, Mobile 전용 뷰어 등 보다 다양한 클라이언트 뷰어 지원이 가능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 등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 기능과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 웹과 모바일 환경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도표 문화’ 특성과 국내 설정에 맞는 UI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출시하였다.



■ 전자문서 부문

전자문서 부문에서는 PDF 기반의 전자 서식은 폰트를 포함한 최종 문서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일 사이즈가 큰 데 반하여, XML 서식 기반의 동사 제품 e-Form은 PDF 서식 기반의 타 제품보다 용량이 작은 XML 파일을 전송하므로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를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많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한다. 동사에서는 XML 방식의 OZ e-Form를 제공하여, SGA의 SGA-TD(이미지 방식), 유니닥스의 ezPDF FormSystems (PDF) 방식과 경쟁하고 있다.

■ eformsign 부문

eformsign은 전자문서 유통, 보관, 활용까지 모든 Lift-cycle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표 05. Green 제품군 특징

구 분		내 용
리포트 부문	OZ Report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 배포, 조회, 관리해 주는 정형 리포팅 솔루션
전자문서 부문	OZ e-Form	기존에 기업에서 종이로 사용하던 신청서, 계약서 등의 다양한 문서들을 손쉽게 전자문서로 개발하고 모바일 및 웹에서 작성, 배포, 조회, 관리해주는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eformsign 부문	eformsign	기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서류(종이문서)들을 개발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손쉽게 처음부터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바로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하고 안전한 보관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보고서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OZ 8.0 제품

동사 전자문서 생성 및 리포팅 솔루션 브랜드인 OZ 제품은 2019년에 OZ 8.0 version을 출시하였다.

OZ 8.0 version은 서식 개발 환경 강화, 강력한 성능으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HTML5 뷰어, 다양해진 입력 컴포넌트, 풍부해진 기능들로 모바일 환경에 더욱 최적화된 UI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XML 기반의 전자문서 개발 방식 뿐만 아니라 기존 PDF 파일도 그대로 활용하여 SML 서식과 함께 혼합된 형태의 서식 개발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효율성 향상은 물론 서식 개발 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모바일 환경은 좌/우 페이지 쓸기 이동, 두 손가락 확대/축소, 사용자 입력을 안내하는 주석기능 강화, 컴포넌트 하이라이트 기능 등 종이문서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을 입증 받았다.

동사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솔루션 다양화를 구상 중에 있으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양한 기능을 더해 산업별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계획이고, 음성인식, 인공지능 외에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융합까지 계획하고 있다.



■ 기술력의 산실, (주)포시에스 부설연구소

동사는 2010년 10월부터 (주)포시에스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총 49명으로 회사 전체 인력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표 06. 기술개발 현황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전담부서	
	<input type="checkbox"/> 기술인력만 확복		<input type="checkbox"/>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기술개발 인력현황	구분	합계	전체 종업원 수 (2020년 5월 말 기준)	기술인력 비중
	연구인력	49명	149명	33%
기술개발실적	자체개발실적	기술도입실적	상용화실적	
	0건	0건	0건	
특허 및 인증현황	특허	실용신안	인증실적	수상실적
	등록	출원공개	등록	출원공개
	8건	5건	0건	30건
				56건
연구개발비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평균
R&D 투자비율	14.0%	12.7%	11.5%	
연구개발비(백만원)	1,796	2,303	2,263	12.7%
매출액(백만원)	12,824	18,083	19,745	4.01%

*출처: 한국기업데이터

표 07. 동사 제품의 적용사례

구 분	내 용	
OZ Report	대법원	- 대법원은 C/S에서 웹으로 컴퓨팅 환경을 변환하면서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표준 리포팅툴로 OZ Report를 채택. 중요한 법정서식과 증거문서의 개발에 적용 중.
	국세청	- 국세청은 본청, 100개의 지역 세무서 및 세무 사무소를 연결하는 통합 세금 시스템의 리포팅 표준툴로 OZ Report를 선정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및 통계 서비스 등에 사용.
	시큐아이닷컴 보안솔루션에 번들	- 보안장비, 컨설팅 전문업체 시큐아이닷컴 제품과 OZ Report 연동. IPS, WAF, NXG, DDos, eXshield, Central Manager 등 시큐아이아이닷컴의 모든 제품에 적용.
	방카슈랑스	-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업무에 OZ Report 사용.
	해외	- 일본 미쓰이 생명보험에서 보험 설계서, 청약 및 영수증 작성에 OZ Report 사용 중.
OZ e-Form	보험사 모바일 전자청약 시스템	- 보험사 라이프 플래너가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보험상품 소개부터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태블릿 PC를 통해 One-Stop으로 해결하는 전자청약 시스템 - 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삼성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은행 및 증권사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	- 외부에서 계좌 개설 및 금융투자상품(펀드 등) 판매 영업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ODS-Out Door Sales) 시스템 - 하나은행, SC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시티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코스콤
	은행 및 증권사 창구 페이퍼리스 시스템	- KB국민은행, 하나은행, SC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KB증권
	병원 모바일 전자동의서 시스템	- 병원에서 종이문서로 작성해 사용중인 각종 동의서 및 설문지를 모바일 디바이스 및 PC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 저장, 수정,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재)심장혈관연구재단, 강동경



		희대학교병원, 부산동아대학교병원, 명재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청주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NYAM Clinic, 더밝은안과
제조분야 모바일현장 작업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정관리에서 정확한 업무지시, 종이 없는 작업환경, 작업 결과의 전자 문서화 및 영구 보존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TSM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보고서

한편, 동사는 등록특허 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식재산권은 전자문서 정보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주력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 전자문서 생성, 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 등에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보호,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08. 동사의 지식재산권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등록특허	KR10-2076793	2020.02.06	음성을 통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음성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 방법 및 장치
등록특허	KR10-1976665	2019.05.02	영상 출력 장치들을 활용한 전자문서 정보 처리 장치 및 그의 정보 처리 방법
등록특허	KR10-1770352	2017.08.16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등록특허	KR10-1629418	2016.06.03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와 스캔용지를 이용한 실물크기 스캔 시스템 및 방법
등록특허	KR10-1437618	2014.08.28	모바일기기의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스캔 장치 및 그 방법
등록특허	KR10-1437619	2014.08.28	전자문서 보안 출력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특허	KR10-1437622	2014.08.28	모바일기기의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스캔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특허	KR10-1399401	2014.05.20	터치스크린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처: WIPS-ON

IV. 재무분석

양호한 성장률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동사의 매출액은 2017년 128억, 2018년 181억, 2019년 197억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낮은 부채비율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 꾸준한 매출상승, 양호한 수익성 수준 유지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2016.7~2017.6) 128억원, 2018년(2017.7~2018.6) 181억원, 2019년(2018.7~2019.6) 197억 원, 2020년 3분기(2019.7~2020.3) 152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는 6월말 결산법인임)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5,172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 25.35%, 매출액순이익률 9.56%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익성을 지속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이어갔다.

동사의 상품군 중 최근 3년간 제품매출 중에서 전자문서 부문이 가장 크게 증가 하였으며, 특히 eformsign 매출은 2018년 첫 제품화 이후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하여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림 08.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보고서(2020), 6월말 결산 법인임

■ 우수한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오랜 업력과 우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2019년 6월말 기준 31,494백만원의 누적 이익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이 7,546백만원으로 총자산의 14.28%에 해당하는 등 양호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3.90%, 자기자본비율 96.10%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무적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09. 동사 연간 및 최근분기 재무상태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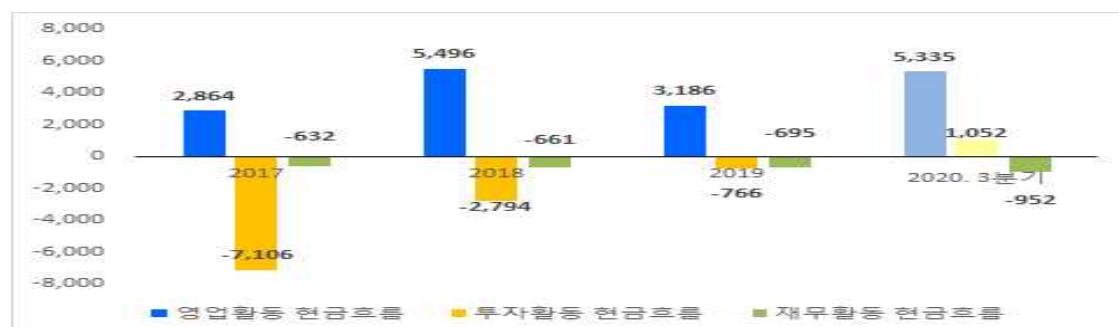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보고서(2020), 6월말 결산법인 임

■ 양호한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유지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3년 연속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유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활동에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보이던 투자 관련 현금흐름도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등 현금성자산 보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금흐름 기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백만원)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보고서(2020), 6월말 결산법인 임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전자문서 생태계 확장, 폭넓은 서비스 제공

동사는 음성을 이용한 전자문서 작성 서비스와 클라우드 및 AI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이다.

■ 전자문서 및 리포팅 시장 생태계를 확장

동사는 꾸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2019년 2건의 GS(Good Software) 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이라는 기술적인 성과를 이루고, 2020년에 1건의 GS(Good Software) 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음성을 통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음성을 통한 전자문서 작성 방법 및 장치’라는 발명의 명칭의 1건의 특허를 등록받았다.

특히, 2020년에 등록받은 특허는 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고도 스피커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음성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동사 주력 제품인 전자문서 솔루션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기술이다.

■ 클라우드 및 AI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동사는 2018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인 eformsign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기능을 더하여 산업별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0년에 등록받은 음성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외에 보안기능을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융합까지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음성인식 기술과 AI 기계독해 기술이 연동된 전자문서 작성 프로세스 eformbot은 동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집중 개발하고 있는 분야로서, 기존 손터치, 펜터치로만 전자문서를 작성 할 수 있었던 것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손쉽게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도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서, 경쟁력있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에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전자문서 시장전망

동사는 OZ e-Form을 앞세워 2020년 상반기에 미래에셋생명과 한국투자증권의 디지털 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전자약정 · 웹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한화저축은행의 외국인 대상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산업계가 재택근무, 비대면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 동사는 향후 주요 국가별 신규 파트너 발굴은 물론, 싱가포르와 일본 외 북미와 유럽 지역에 지사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 문서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작성일
	Buy(신규)	목표주가	
DB금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유통, 통신업계의 디지털 창구, 페이퍼리스 투자 확대로, 2020년 전자문서 부문 고성장 전망 2019년 베트남 TOP 10 은행 중 하나인 호치민시개발은행과 OZ e-Form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역에 판매 채널을 확장할 계획 	-	2019. 10. 15.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